

# 남해군 용소폭포,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

허귀용 기자 | 승인 2023.10.04

남해군 이동면 용소폭포, 마을바래길 사업 선정  
11월 말~12월 초 용소폭포바래길 개통 예정

접근로가 없어 일반인 출입이 어려웠던 남해군 이동면 용소폭포가 마을바래길 사업으로 관광 자원화될 예정이다.

남해군 마을바래길 사업은 마을주민 대표들이 신청하는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이다. 지난해 시작돼 현재 남면과 서면에 각각 만수무강바래길과 삼별초바래길이 조성됐다. 기존 바래길이 관광객 중심인 것과 달리 마을바래길은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중단거리로 조성된다.

올해 마을바래길은 고현과 상주, 이동 등 3곳이 접수됐다. 이에 마을바래길 선정위원회는 지난 달 열린 회의에서 주민참여도가 가장 높았던 이동면 가칭 ‘용소폭포바래길’을 선정했다.

용소폭포바래길이 뿔힌 건 천년고찰 용문사와 백련암을 연결하는 오솔길과 오래전 조성했으나 방치됐던 서포문학 계곡길을 끌어안은 점이다. 여기에 더해 접근로가 없었던 용소폭포를 바래길로 자원화 한다는 것이 큰 매력이 됐다.

무엇보다 용소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주효했다. 용소폭포 접근로를 위해 폭포 위·아래로 논밭을 지나야 하는데, 토지 소유주들이 보행로 확보를 위한 토지사용을 허락했다.

더불어 마을바래길이 마을안길을 통과하도록 마을 이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주민들을 설득했고, 이것이 반영됐다는 점도 심사위원들 마음을 움직였다.

앞으로 용소마을은 마을바래길을 활용한 마을장터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용소마을이 탐방명소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용소마을 농수로 관광자원화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용소폭포바래길은 약 두 달 간 정밀 노선 컨설팅과 노면정비를 거쳐 11월 하순이나 12월 초 개통될 예정이다.

마을바래길 사업을 주관하는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마을바래길로 기존 바래길들이 끌어안지 못했던 다양한 마을자원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는 효과를 보고 있다. 주민들이 합심해서 내년에도 좋은 코스를 제안해주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주민들의 걷기를 장려하고자 조성된 마을바래길도 바래길앱을 통해 완보하면 캐릭터 코스 완보배지를 증정한다. 지난해 개통된 남면과 서면 마을바래길은 지난 10개월 동안 3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귀용 기자

저작권자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귀용 기자